

광주, 강등 불씨 꺾다



광주FC의 이강현(오른쪽)이 10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3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제주와 0-0 무승부...대구가 겨 9위 확보

광주FC가 내년 시즌에도 K리그1에서 달린다. 광주FC는 10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제주유나이티드와의 K리그1 37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0을 기록했다. 11개의 슈팅이 모두 불발하면서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이날 대구FC가 전북현대에 1-3으로 지면서 광주가 강등권에서 벗어났다. 이날 경기 포함 두 경기를 남겨둔 상황에서 광주 승점은 '45'로 대구(승점 40)와는 승점 5점 차였다. 광주가 제주전에서 승점을 더하면서 대구와는 6점 차가 됐고, 이날 대구를 꺾고 10위로 오른 전북도 승점 41에 그치면서 최종전 결과에 상관없이 광주는 최소 9위를 확보했다. K리그1 10-11위 팀은 각각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 2위 팀과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러 '생존'을 노려야 한다. 광주는 '무조건 승리'로 잔류를 확정하겠다는 각오로 제주 원정길에 나섰다. 초반 흐름은 제주가 주도했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제주 갈레고가 왼쪽에서 위력적인 슈팅을 날렸고, 골키퍼 김경민이 이를 막아냈다. 전반 7분 광주 정호연이 아쉬움을 삼켰다. 왼쪽에서 이만기가 띄워준 공이 문전에 있던 정호연 앞으로 향했다.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아쉽게 골대를 넘어가지는 못했다.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는 정호연이 크로스를 올렸고, 정지훈이 문전에서 오른발로 골대를 노렸지만 이번에도 공이 빔나갔다. 이후 김경민이 바쁘게 움직였다. 전반 16분 광주 진영에서 패스 미스가 나왔고, 제주 김주공이 이를 놓치지 않고 오른발 슈팅을 시도했다. 김경민이 동물적인 움직임으로 공을 쳐 내면서 실점을 막았다.

22분에는 제주 이주용이 몸을 날려 헤더를 시도했고, 이번에도 김경민이 막아냈다. 이후 광주가 공세 수위를 높이면서 슈팅을 이어갔지만 좀처럼 제주 골대를 열지 못했다. 27분과 30분에는 이강현과 정지훈이 슈팅을 시도했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다. 후반 11분에는 변준수의 오른발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벗어났다. 경기 시작과 함께 슈팅을 시도했던 갈레고가 몇 차례 더 슈팅을 시도하면서 광주를 위협했다. 후반 21분에는 광주 골대로 위력적인 중거리 슈팅을 때렸고 김경민이 몸을 날려 처리했다. 광주 아사니도 갈레고에 맞서 오른발과 왼발로 슈팅을 시도했지만 골맛을 보지는 못했다. 이희균과 오후성의 슈팅 시도도 무위로 끝나면서 광주는 0-0으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시원한 승리는 거두지 못했지만 '9일간의 3경기'라는 살인적인 일정을 소화한 광주는 대구의 패배 소식에 웃을 수 있었다. 광주는 지난 3일 홈에서 대전과 36라운드 경기를 치렀고, 이어 일본 고베로 가서 5일 아시아챔피언스리그 엘리트 리그(ACLE) 4차전을 소화했다. 그리고 다시 제주에서 '생존 싸움'을 펼쳤다. 지난 시즌 1부리그로 복귀해 구단 최고 순위인 '3위'까지 올랐던 광주는 올 시즌 ACLE 일정을 병행하면서 가슴 졸이는 시간을 보냈다. 구단 재정건전성 문제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선수 보강도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살인적인 강행군을 펼쳤던 광주는 잔류를 확정하고, ACLE 도전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인천유나이티드는 '생존왕' 타이틀을 내려놓게 됐다. 인천은 이날 대전하나시티즌과의 경기에서 1-2패를 기록, 최하위로 다이렉트 강등 운명을 맞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

전남, 승격 불씨 살렸다



K리그2 최종전이 9일 진행되면서 플레이오프 대진과 일정이 확정됐다. 4위로 시즌을 마감한 전남(노란색 유니폼)과 5위 부산이 21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준플레이오프 단판 승부를 갖는다. <전남 드래곤즈 제공>

K리그2 최종전 PO 진출 팀 확정 시즌 4위 전남, 7년만에 승격 도전 21일 5위 부산아이파크와 '단판 승부'

'승격 전쟁'이 21일 시작된다. 전남드래곤즈가 7년 만의 승격을 위한 도전에 나선다. K리그2 2024 정규시즌이 9일 최종 36라운드 일정을 끝으로 종료됐다. 이날 진행된 최종전을 통해 K리그2 준플레이오프와 플레이오프 진출 팀과 대진·일정이 확정됐다. 준플레이오프는 4위 전남과 5위 부산아이파크의 대결로 진행된다. 전남은 2위에 자리하고 있던 서울이랜드와의 9일 마지막 대결에서 플라카의 멀티골을 앞세워 4-0 승리를 거두고, 4위로 2024시즌을 마감했다. 6위에서 최종전에 나섰던 부산도 부천FC를 3-1로 꺾고 5위로 점프하면서 승격 불씨를 살렸다. 두 팀은 21일 오후 7시 4위 팀 전남의 안방인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단판 승부를 벌이게 된다. 이 경기에서 전남은 무승부만 거둬도 준플레이오프에 진출할 수 있다. 전남이 준플레이오프 승자가 되면 3위 서울이랜드와 K리그2 플레이오프 대결을 벌이게 된다. 플레이오프는 24일 오후 2시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치러진다. 플레이오프 역시 준플레이오프와 마찬가지로 단판 승부로 전개되며 90분 경기 후 무승부시, 정규라운드 순위 상위팀이 승자가 된다.

플레이오프 승자에게는 '하나은행 K리그 승강플레이오프 2024' 진출 자격이 주어진다. 승강플레이오프는 K리그1 11위 팀과 K리그2 2위 충남아산(승강PO1), K리그1 10위와 K리그2 플레이오프 승자(승강PO2)의 맞대결로 진행된다. 승강PO1과 승강PO2 1차전은 28일 오후 7시 K리그2 팀의 홈구장에서 열린다. 2차전은 12월 1일 오후 2시 K리그1 팀의 안방에서 펼쳐진다. K리그1 37라운드 결과 인천유나이티드가 최하위로 다이렉트 강등이 확정됐고, 전북현대와 대구FC가 10위를 놓고 24일 최종전을 치른다. 전북은 2024-25 AFC 챔피언스리그에 참가해 ACL2 일정을 병행하고 있는 만큼 해당 승강플레이오프는 12월 1일 1차전, 12월 8일 2차전 일정으로 진행된다. 승강플레이오프에서는 1-2차전 승리가 많은 팀이 승자가 되고, 승리가 같은 경우에는 득실차로 승부를 결정한다. 합산 득실차도 같으면 전후반 15분씩 연장전을 갖는다. 연장전에서도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승부차기로 두 팀의 운명이 가려진다. 승강플레이오프를 통해 K리그1팀은 '잔류'를 노리고, K리그2 팀은 '승격'에 도전한다. 한편 지난해 K리그1 최하위로 구단 역사상 첫 강등 운명을 맞았던 '전통의 강호' 수원삼성(46득점)은 5위 부산(55득점)과 승점 56으로 동률을 이뤘지만 득점에서 밀려, 내년 시즌에도 K리그2에서 도전을 시즌을 보내게 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유럽파, A매치 앞두고 '만점 활약'

파리 생제르맹 이강인 '2골1도움'...이재성·배준호도 '펼 펼'

홍명보호 승선을 앞둔 태극전사들이 소속팀에서 맹활약하며 11월 A매치 전승 기대감을 키웠다. 손흥민(토트넘)의 뒤를 이어 홍명보호의 새 에이스로 떠오르는 이강인(사진)은 10일 열린 양제와의 2024-2025시즌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11라운드 원정 경기에 선발 출전해 전반에만 2골 1도움 '원맨쇼'를 펼치며 소속팀 파리 생제르맹(PSG)의 4-2 승리에 앞장섰다. 이강인은 전반 17분과 20분, 왼쪽에서 넘어온 땅볼 크로스를 문전에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해 연달아 두 골을 넣었다. 전반 47분에는 오른쪽에서 대각선 크로스를 올려 브라들리 바르콜라의 헤더골을 도왔다. PSG의 4번째 골이었다. 이강인이 프로 무대에서 멀티골을 기록한 건 발렌시아(스페인)에서 뛰던 2023년 4월 헤타페와 경기 이후 1년 7개월 만이며, 한 경기에서 3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린 처음 있는 일이다. '생애 최고의 활약'을 펼쳐 보인 이강인은 홍명보 감독이 지휘하는 국가대표팀에서는 대체 불가능한 공격 자원이자이다. 9월 시작된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는 매 경기 거의 풀타임을 소화했다. 특히 '캡틴' 손흥민이 부상으로 이탈한 10월 요르단, 이라크를 상대로 치른 3차 예선 3, 4차전에서 공격적 역할을 진두지휘하며 홍명보호의 흔들림 없는 승리에 이바지했다. 대표팀의 '언성 히어로' 이재성(마인츠)도 소속



팀에서 원맨쇼를 펼치며 11월 A매치 기대감을 키웠다. 이재성은 이날 끝난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10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전반 36분 헤더 선제골을 터뜨리며 마인츠의 3-1 승리에 기여했다. /연합뉴스

이재성은 전반 36분 오른쪽에서 앙토니 카시가 올린 공을 골 지역 정면에서 머리로 받아 득점했다. 이재성은 전반 26분에는 도르트문트 엠레 잔의 퇴장을 유도해내기도 했다. 잔이 이재성의 왼쪽 발목을 향해 깊은 태클을 가했고, 심판은 레드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재성은 마인츠의 2번째 골에도 관여했다. 전반 추가시간 이재성의 헤더 패스가 다니 다코스타의 크로스를 거쳐 요나탄 부르카르트의 득점으로 이어졌다. 이재성은 전반 40분 페널티킥을 내주는 실책을 저지르긴 했지만, '육에 티'였다. 홍명보호의 '신예' 배준호(스투트지) 역시 소속팀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배준호는 9일 밀월을 상대로 치른 잉글랜드 챔피언스(2부) 홈 경기에서 1-1 동점골을 어시스트, 스투트지시에 승점 1을 선사했다. 후반 15분 배준호의 정교한 코너킥이 벤 김슨의 헤더골로 이어졌다. 10월 A매치 때 처음으로 홍 감독의 부름을 받은 배준호는 3차 예선 3, 4차전에서 연속으로 도움을 기록한 바 있다. 홍명보호는 11월 A매치 기간 쿠웨이트, 팔레스타인을 상대로 월드컵 3차 예선 5, 6차전 '원정 2연전'을 치른다. 한국은 14일 오후 11시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의 자베르 알 아흐메드 국제 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조별리그 5차전을 치른 뒤 요르단 암만으로 이동해 19일 오후 11시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6차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타이거즈 'V12' 인증 상품 관심 뜨겁다

1차전 '박병호 삼진' 전상현 공 230만원 낙찰 등 94개 상품 완판

KIA 타이거즈의 'V12'를 예고한 전상현의 공이 230만원에 판매됐다. KBO가 2024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의 전 경기 매진을 기념해 발매한 '공식 인증 상품'에 야구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29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한국시리즈 스페셜 사용구 옥션에서는 준비된 94개의 상품이 모두 판매됐다. 가장 높은 낙찰가의 상품은 지난 23일 서스펜 디드로 재개된 KIA와 삼성의 한국시리즈 1차전 6회초 상황에서 전상현이 박병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웠던 공으로, 230만원을 기록했다. 당시 전상현은 0-1로 뒤진 6회초 무사 1·2루에 상황에 등판해 김영웅을 상대로 던진 초구로 3루 주자를 잡아냈다. 번트 타구가 포수 김태군 바로 앞에 떨어지면서 KIA는 3루 승부를 펼쳤다. 전상현은 이어 나온 박병호를 상대로 4구째 헛스윙 삼진을 만들면서 한국시리즈 흐름을 바꿨다. 전상현의 탈삼진 공이 최고가를 기록했고 1차전 7회말 KIA 김도영의 1타점 1루타 볼(175만원·사진), 1차전 2회말 삼성 선발 원태인의 탈삼진 볼(140만 원), 5차전 9회초 KIA 정해영의 탈삼진 볼(130만 원)이 그 뒤를 이었다. 구매자는 동봉된 인증서 내 QR코드와 인증번호를 통해 어떤 선수의 투구, 타석인지 여부와 공이 발생한 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장에서 전문 운영 요원이 관련한 세부 사항을 자세히 기록했다.



한국시리즈 2차전 김도영 결승타 볼.

KBO는 또 공식 기록위원회가 작성한 2024 한국시리즈 1, 2, 4, 5차전 기록지(15만 원·4개 1세트 구성)와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KIA의 홈구장에 설치됐던 베이스(1·3루 개별 구성), 안타 및 파울볼 등의 일반 경기 사용구(5만 원·200개 구성)도 판매하고 있다. 한국시리즈 공식 인증 상품과 관련한 내용은 KBO와 컬렉스의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